

청춘아띠, 그날의 우리



캠보디아아띠 10월호

목차

1. 달력	p. 3
2. 주간계획	p. 4
3. 프놈크라움 마을지도	p. 5
4. 프놈크라움 마을소개	p. 6
5. 썸크니어, 프놈크라움 유치원	p. 8
6. 프놈크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	p.10
7. 쌀라아띠	p.12
8. 크메르어 수업	p.17
9. 스텝한국어	p.19
10. 도서관 프로그램	p.22
11.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23
12. 빈곤퇴치 캠페인	p.26
13. 희망콘서트	p.30
14. 캠팀의 휴가	p.31
15. 개인에세이	p.33
16. 사진전	p.37

이제부터
저희의 10월 모습을
들여다 보실까요?



민기

용석

결

지훈

October 2012



프놈그라움유치원



프놈그라움중학교
한국어수업



밥퍼



퐁크니어유치원



크메르어수업



빵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의료봉사, 미용봉사	2 컴퓨터수업참관 앙코르미소관람 살라아띠홍보시작	3 음악수업참관	4 포이펜 비자트립	5 밥퍼	6 한글학교
7 휴일	8 프놈그라움 중학교방문	9 프놈그라움 중학교방문	10 회식 른은이공항마중	11 밥퍼	12 밥퍼	13 한글학교
14 시아누크빌 휴가	15 시아누크빌 휴가	16 시아누크빌 휴가	17 시엠립도착 휴식	18 밥퍼	19 밥퍼	20 한글학교 End Poverty 캠페인
21 휴일	22 콘서트댄스연습 김학용원장님맞이	23 이옥주부위원장님 출국	24 100명 봉사자	25 콘서트 총 리허설 콘서트댄스연습	26 콘서트회의 콘서트댄스연습	27 한글학교 콘서트
28 콘서트뒷풀이	29 프놈클랜휴가	30 다일휴일	31 캄퐁플록휴가			

주간계획

★ 빨라아띠

	MON	TUE	WED	THU	FRI	SAT
9	퐁크니어 유치원	지훈 스텝한국어	프놈프라운 유치원		★십자수(지훈)	
10	지훈스텝한국어	프놈프라운 중학교		프놈프라운 중학교	도서관프로그램	한글학교
11	★미술(용석)		도서관프로그램 ★미술(용석)			
12	★한국어(결)		★한국어(결)			
1						
2	★미술(용석)	★축구(민기)	프놈프라운 유치원	★미술(용석) ★축구,십자수 (민기,지훈)	★십자수(지훈)	
3	크메르어수업	크메르어수업	크메르어수업			
4	결 스텝한국어	용석,지훈,민기 결 스텝한국어	지훈,결 스텝한국어	용석,민기,결 스텝한국어	결 스텝한국어	

프놈끄라움 마을지도



시엠립 ↑
시내가는길

파리집

만네악집

배구장

피음집

라이집

타집

샤집

재인집

큰슬레이엄집

KB
도서관

다일

샤로앗집

보파집

시장

라면집

카페

수상가옥

프놈

툰레삽가는길 ↓

썸크니어유치원

※ 본지도는 어림짐작으로 만든 지도로
사실과 쫌꿈 다를 수 있습니다.

프놈끄라움 마을소개



우리 숙소에서 약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프놈끄라움은 산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다일센터가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인기있는 운동이 배구인데 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배구장에는 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배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놈끄라움에 있는 집들은 땅과 집의 거리가 높다. 우기에 대비하여 나무기둥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이다. 집들은 거의 나무로 지어졌고, 센터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부유층에 속한다고 한다.



프놈끄라움 마을은 주로 톤레삽에서 어업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는데 최근 우기로 인해 수상가옥이 센터 주변으로 옮겨왔다. 그 수상가옥의 아이들이 다일센터에도 와서 쌀라아띠교실에도 오고, 센터 이곳 저곳을 누비며 열심히 놀고 있지만 아마 우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프놈끄라움 마을에서 늘 점심을 먹은 뒤 가는 프놈끄라움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카페. 커피, 레몬티, 코코아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카페 딱따꼬 뜨꺼(얼음커피)로 하루에 한번씩은 꼭 먹는 커피이다.



카페와 더불어 예전부터 라운아띠들이 즐겨 갔던 라면집으로 곱빼기와 국물리필이 가능하다. 점심밥이 없거나, 라면이 땡기는 날에는 어김없이 이 라면집을 들린다.



마을 시장에는 라면, 볶음밥 등 맛있는 음식점을 시작으로 하여 톤레삽에서 잡은 고기들, 신선한 과일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데 시내의 시장들보다 저렴하여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쫘크니어, 프놈끄라움 유치원수업



일주일에 한번 프놈끄라움 유치원과 쫘크니어 유치원에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쫘크니어 유치원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 10시에 수업을, 프놈끄라움 유치원에는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 10시, 오후 1시 ~ 2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놈끄라움 유치원은 다일센터에서 만든 유치원으로, 다일센터에서 가까운 프놈끄라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살과 6살 반으로 나뉘어 고용석단원과 한결단원은 6살반에, 조민기단원과 박지훈단원은 5살반에 들어가 현재까지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율동수업을 하였습니다.

쫘크니어 유치원은 바다위에 있는 해상유치원으로 한국의 기업인 KT&G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다일센터에서 20분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곳으로 쫘크니어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4살과 5살 반이 있으며 4살반에는 조민기단원과 박지훈단원이, 5살반에는 고용석단원과 한결단원이 들어가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율동수업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수업을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10월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율동수업은 한국에서 미리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온 '반짝 반짝 작은 별' 을 간단한 율동과 함께 불렀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하지 않았고, 율동도 30명의 아이들중 2~3명만 조금씩 따라하였습니다. 단원들은 1시간 내내 춤과 노래를 불렀지만, 끝까지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선생님조차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썸크니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프놈끄라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형편이 더 열악해 프놈끄라운유치원 아이들보다 학습수준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썸크니어유치원의 아이들을 위해 더 쉬운 수업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유치원 수업은 준비했던 모든 수업이 실패했다고 말할 만큼 생각보다 어려웠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10월 유치원 수업을 마쳤습니다.

캠팀의 생각



11월에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야겠어. 이번달은 절망적이야.



그냥 무언가를 바라는데 아니라 같이 즐기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조금 내려 봐야만 즐겁게 아이들과 수업 할 수 있을 것같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난이도를 조절하는게 힘들다. 좀 더 쉬운 수업을 준비해야겠어.

프놈끄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

프놈끄라움 중학교

프놈끄라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중학교이다. 수원시청이 여러 후원을 받아 학교를 지어서, 수원중학교라고 하기도한다. 그리고 프놈끄라움마을을 수원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하나 없던곳에 수원에서 학교와 마을회관을 지어줬으니 그럴만도 하다. 마을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몇년전에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가 없었다는 것이 참 기막힌다. 이 학교가 없었더라면 아이들은 아직도 정규수업한번 받아보지 못한채로 어릴때부터 돈을 벌려고 일을 했을 것이다. 수업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이 많지 않고, 아이들수에 비해 교실이 많지 않은 등 여건이 마땅치않아서 아이들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하루 2~3 시간씩만 수업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찬 일인 것 같다. 아띠들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한국어수업을 하여 아이들교육에 작은 보탬이 되고있다.



한국어수업은?

라운아띠들이 가르치는 한국어수업은 화목 오전10시부터 11시에 이루어지고있다. 7-A반과 7-B반을 맡고있다. 한국어수업을 원하는 신청자만 받아서 가르치긴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기도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차가 많이 나서 난이도를 맞추는 것도 힘들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한국어수업



쌀라아띠

쌀라아띠란?

아띠들의 학교라는 캄보디아말이다. 여건상 짧은 수업밖에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라운아띠들이 준비하는 무료 방과후수업이다.

8기의 쌀라아띠는?

한국어, 십자수, 축구, 미술 4반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민기단원의 경우 쌀라아띠로 마술을 준비했었다가 주변의 우려와 염려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할지 많이 고민하기도 하였다.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 아이들의 정규수업을 피하고, 아띠들의 일과시간과 겹치지 않게 시간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알맞은 시간대를 정하지 못해 시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홍보도 힘들었다. 초기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우려를 하였다. 하지만 홍보물을 만들어 센터 곳곳과 프놈끄라움 마을 곳곳에 정성껏 붙이고, 아띠조끼 뒤에도 붙여 홍보하였더니 효과가 컸다. 그 덕분에 지금은 모든반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살라아띠 미술반

선생님: 고용석

오전반은 월,수 오전 10시30분, 오후반은 월,목 오후 1시에 운영되고 있다.

9월 처음 센터에 왔을때부터 미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반 하나에 모두를 넣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아이들의 학교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져 있어서, 오전에 학교가는 아이들, 그리고 오후에 학교가는 아이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었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두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4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와서 수업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다. 게다가 오전반은 여러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반면 오후반은 이제까지 수업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수업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각자 반에 맞는 수업방법으로 미술수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살라아띠 한국어반

선생님 : 한결

살라아띠 한국어반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로사, 소치, 리사, 보타, 리다, 반리읍, 씨훈, 다완 총 8명으로 나이는 11살에서 14살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어를 배우러오는 학생들이 모두다 '언어' 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강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영어학원을 따로 다니고 있고 센터에서 하는 영어교실을 듣는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캄보디아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영어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잘되어 정말 편하고 더욱더 쉽게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고자하는 욕구가 강한 만큼 한국어를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해 소수의 인원이지만 수업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우리반이 최고~!



살라아띠 십자수반

선생님 : 박지훈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오기 전 살라아띠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지를 생각하다가 중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십자수를 떠올리고 현재 십자수반을 만들어 이끌어나가고 있다.

인원은 10명정도로 목,금 1:30~2:30에 한 번을 정규 수업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 금요일 오전 9:00~10:00 반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많은 아이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 당황하고 실망했다.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거의 1:1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수에 대한 욕심보다는 얼마나 아이들이 그 날의 진도를 다 같이 따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생겼다. 처음에는 십자수를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이 1시간 내내 집중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십자수반 하기를 잘했다 싶다.

하지만 더러 수업을 못 따라와 어려움을 겪고 하루에 몇 번 새로운 도안과 천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처음 2주 동안에는 그냥 관찮다하면서 다 쫓는데 점점 한 번도 제대로 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 이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천과 도안을 나누어 주는 식이다. 시간대도 변경되기도 하고 많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루하루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꼭 십자수반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살라아띠 축구반

살라아띠 축구반은 일주일에 두 번 점심을 먹은 후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2층 강당에서 수업을 한다. 학생은 8~10명으로 불규칙적이다. 아이들이 학교가는 날이 오전, 오후로 자주 바뀌어서 고정적으로 오지는 못하는 거 같다. 하지만 룯, 재잉은 항상 나오며 주변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주고 아이들이 많이 적극적이라 나름대로 즐겁게 수업한다. 처음 마술 살라아띠를 계획했지만, 이옥주 부원장님의 피드백으로 마술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부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말고 같이 놀아라 그게 살라아띠란다.” 라는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같이 놀자라는 느낌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축구용어로 인해 훈련을 많이 못하고 게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점차 패스, 슈트, 드리블 훈련을 늘려가고 있다.



크메르어 수업



일주일에 3번,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크메르어 수업은 외부에서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따로 불러 배웠던 전 기수와는 달리 다일 스텝인 파리, 펄라, 분성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크메르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스텝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생소하고, 수업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을까 했는데 학생과 선생님 모두 적극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부터 크메르어 수업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었다면 현재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면서 쓰면 좋을 유용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크메르어 선생님 소개



늘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은 펄라 선생님! 1분도 아까워하며
많은 것을 알려주며,
늘 열심히 하라며 힘을 주시는 선생님!

수업시간에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분생선생님!
질문 중심의 수업을 좋아하는, 재미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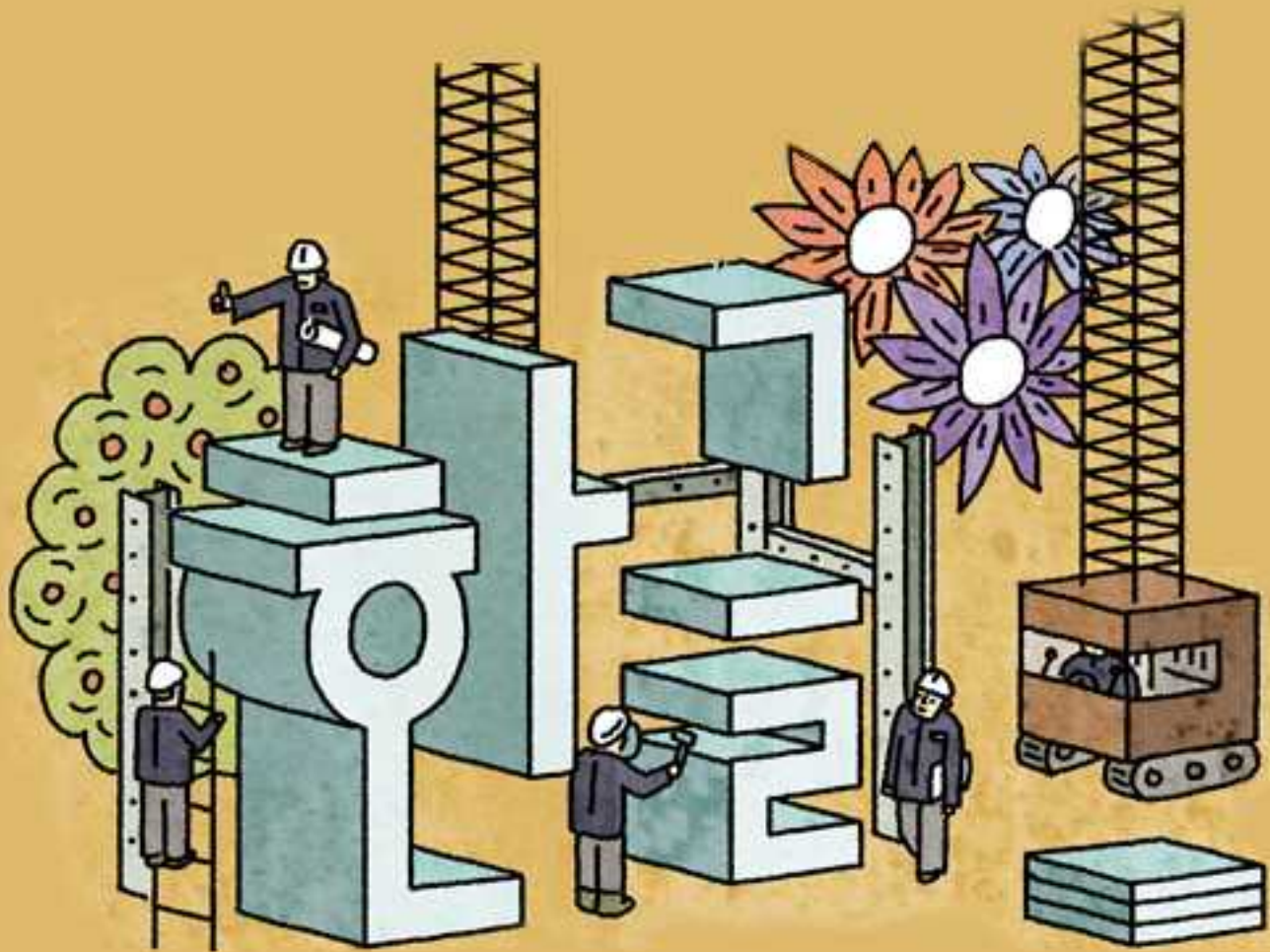


한국말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한 파리선생님! 어떤 질문에
있어서도 친절하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예도 잘 들어주는
선생님!

스텝한국어

다일에는 한국인 스텝과 더불어 많은 캄보디아 스텝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만큼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한국인 스텝들도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스텝들도 한국어를 배우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생겨 '스텝한국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일센터에서 밥퍼로 일하는 노부야, 스레이멍과 사무실에서 통역과 문서번역작업을 맡고 있는 펄라, 파리, 분생과 빵퍼로 일하고 있는 사로앗, 펄리, 쟈니, 아론, 무이, 싸룬, 시켄, 보파가 라운아띠인 저희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오기 전부터 스텝들은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각자 어느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첫날에는 실력테스트를 한 후 반을 4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A팀 분생, 펄라, 파리, 사로앗 - 선생님: 한결

저희 팀은 다일센터에서 통역을 맡고 있는 스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생, 파리, 펄라는 사무실에서 통역과 문서번역을 하고 사로앗은 빵을 만드는 빵퍼스텝이지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 빵퍼스텝과 한국어 스텝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4명의 스텝모두 한국어를 잘하지만 그 중에서 '파리' 라는 스텝이 독보적으로 잘하여 월, 화요일에는 분생, 펄라, 사로앗이 한국어를 배우고, 수, 목, 금요일에는 파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분생, 펄라, 사로앗 반은 분생이 장난기가 많아 수업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줍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분생, 사로앗은 발음이 굉장히 좋은 반면 펄라는 발음이 약간 안 좋아 두 스텝이 펄라가 수업에 잘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리 반은 파리가 워낙 잘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얘기해주고 캄보디아의 문화도 교류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팀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의사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와 함께

B팀 시켄, 보파, 사로 - 선생님 : 민기

우리 반은 시켄, 보파, 사로 빵퍼스텝 세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명이 수업을 잘 따라와서 좋았는데 바쁜 빵퍼 스케줄때문에 수업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아쉬웁니다.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수업 할 맛이 납니다. 스텝들이 기본적으로 쓰기와 읽기가 되어서, 수업은 회화위주로 합니다.



집에서 오붓하게

C팀 아론, 쨌니, 펄리, 무이 - 선생님: 박지훈

내가 맡고 있는 바는 빵퍼 스텝들이 아론, 무이, 쨌니, 펄리입니다. 그 중 아론은 다른 3명의 스텝들보다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여 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업내용은 빵퍼를 하면서 유용한 한국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휴일이 많아 수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크마에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스텝들이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무이, 쨌니, 펄리의 수준차이와 수업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수업에 있어서는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현지 스텝들과 그냥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많은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크마에어를 어려워 하는 것처럼 아론, 무이, 쨌니, 펄리가 한국어를 어려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웃으면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론과 수업중

D팀 노부야, 린슬레이머 - 선생님 : 고용석

내가 맡은 스텝은 노부야, 린슬레이머 두분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래 한국어수업은 ㄱ ㄴ ㄷ ㄹ 같은 글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은 회화를 가르치는게 정석인데, 린슬레이머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 노부야는 한국어수업을 조금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글자를 먼저 가르치려고하면 재미없어서 수업몰입도가 떨어지고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석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텝들 상황에 맞추었습니다. 두 분다 밥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아띠들에게 무엇을 지시할 때 쓰는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글씨를 못 읽는 린슬레이머께 맞추어 단어를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수업장소를 린슬레이머집으로 하여 린슬레이머가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려도 한글과 크마에어를 읽을 줄 아는 두 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린슬레이머집이 센터 바로앞인데다가 열려있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 조금 산만할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스텝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노부야, 린슬레이머와 수업중

도서관 프로그램

10월 도서관 프로그램은 매주 수 10:30~11:00, 금 10:00~11:00로 시행했지만, 27일 콘서트 준비로 부득이하게 빠지는 날이 많았다. 빠지는 날이 많아 지니 아이들에게 언제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다고 광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 했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 단원이 협찬 받아온 무스토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모였고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무스토이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그래서 회의 후 수요일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무스토이를 고정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밖에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마술 등을 시행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모이게 하였다. 앞으로 종이접기, 인형극, 애니메이션 상영, 연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도서관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고 이러한 도서관 활동들을 통해 도서관이 어려운 공간이 아닌 놀이터 같이 재미있고 편하게 오고 갈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더 활성화 할 예정이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지훈이의 친구 분썩 (22세)



늘 '저는 분썩이 아니라 분썩이에요. 다시 말해보요 분썩!
아, 진짜 빙쓰라이(누나) 미운뎃야(문제있다)예요.' 라고
말하는 내 친구 분썩(22살)

처음 친해진 계기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그냥 내가 말을
많이 걸고, 장난을 많이 친해지고 대학생 새내기 분썩을
따라 학교도 따라 가고, 크메르어도 분썩한테 배우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한국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치고 장난도 잘
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인기 많은 분썩.
나보다 2살 어리지만 잘하는 것도 많고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
친구 분썩 늘 어긋찌란(많이 고마워)

민기의 친구 쨌잉 (10세)



- 쨌잉은 항상 센터에 상주하는 어린이 봉사자이다. 쌀라아띠 또앗 바으팀(축구팀)에 들어와 나의 왼팔로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 한국어를 못하지만 나의 말을 통역(?)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많이 친해졌다. 잘생긴 외모와 시크한 성격이 매력이다. 동생 쨌 또한 그런 성격을 닮았다. 똑똑 하진 않지만 뚝뚝한 아이이다.

결이의 친구 피아 (10세)



- 센터에 온지 이틀째였을까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 이름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내 이름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피아가 마치 운명처럼 내 이름을 물어봤다. 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내 이름은 ‘깁냐’ 야” 라고 하자 피아는 활짝 웃으며 너무 좋아했다. 그때부터 내 이름에 노이로제가 걸릴만큼 피아에게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 매일 아침 피아는 센터에 나와 내 이름을 외쳤고, 센터 근처로 산책을 가면 어디선가 ‘깁냐’ 라는 외침이 들린다. 그럼 100% 피아가 날 부르는 소리. 정말 어떠한 계기도 없이 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친해졌다. 우리는 별 얘기안한다. 피아는 항상 내 이름만 외친다. “깁냐~!”

용석이의 친구 수상가옥친구들



레이키
(13세)



레이잔
(10세)



레이깃
(6세)

내가 소개할 친구는 수상가옥 친구들이다. 초기에 매일 센터에서 보이길래 이 동네에서 꼭 살던 아이들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번 우기때 처음 센터에 왔다고 했다. 배로 만들어진 집에 사는 아이들은 원래 톤레삽 부근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우기에는 사방이 물바다가 되는 캄보디아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늘어난 톤레삽을 따라서 센터 바로 뒤까지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센터에서도 구걸을 하고, 사무실이나 주방을 멋모르고 들어오는 등 스텝들과 다른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했었다. 아이들이 심성은 착한데 왜 그럴까 의아해했었다. 좀 생각해보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톤레삽의 환경 때문에 학교를 가기보다는 관광객에게 구걸하거나,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나눌 수 없어서 언제 한번 이곳 규칙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타일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쁜 행동을 줄이고, 착실하게 이곳 규칙에 적응해 가고 있다. 언제한번 애들 집이 어디있나 한번 보러 갔더니 작은 보트에 태워서 주변 수상가옥과 물고기 잡는 곳 그리고 멀리까지 여행시켜주었다. 언젠간 우기가 끝나고, 그러면 다시 톤레삽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이들이라서 더욱 눈에 밝히는 지도 모르겠다.

빈곤퇴치캠페인

의도

캄보디아의 씨엠립은 관광도시라서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팀은 가장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을 택해 관광객들에게 세계 빈곤의날을 알리고 변화가에서 조금만 나가도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사람들도 빈곤퇴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자 생각해보고 실천해봤으면 좋을 것 같았다.

방법

1. 톤레삽에 살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설명하고 가난한 이웃이 있다고 알림
2. 세계 빈곤의 날과 빈곤퇴치캠페인 그리고 MDGs 설명
3. 가난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트잇에 적기
4. 인터뷰를 하여 영상제작



세계 빈곤의 날과 빈곤퇴치캠페인 그리고 MDGs 설명

6기분들이 사용했던 MDGs 판을 보완하여 MDGs 에 대한 설명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 빈곤의 날과 MDGs 설명을 영어로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였다.

가난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트잇에 적기

What can you do to eradicate poverty?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지만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광객이나 질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빈곤퇴치방법에 대하여 쓰게 하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1위로 교육(21%) 이 가장 많이 나왔고
 2위로 부의 분배, 나눔 (10%)
 3위로 일자리마련 (7%)가 그 뒤를 이었다.
 Don't sell poverty 라는 의견과 Don't ignore it! 이라는 색다른 의견도 있었다.

의견을 적은 분들의 국적은
 한국인 8명, 캄보디아인 7명, 중국인 4명, 베트남인 1명
 그 외 영어로 적으신 분들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네팔 등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의견을 해주셨다.



인터뷰를 하였으나...

원래 계획은 캄보디아에서만 빈곤퇴치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도 캠페인을 하려 하였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짧은 인터뷰를 하여 그것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려 하였다. 하지만 캠코더 마이크가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찍은 영상들이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되었다. 정말 슬프다.

인터뷰의 내용

네팔에서 오신 한 관광객은 자기의 나라도 가난한 나라여서 이런 캠페인에 관심이 많다고 우리를 적극 응원해 주었다. 또 한국에서 KOICA로 오신 분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원조만 바라는 태도를 고쳐야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놀랐던 건 인터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봉사활동을 갔었던 적이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봉사를 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라서 인터뷰에 적극 응했던 것이었을수도 있으나 그래고 정말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커서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꼈다.

다른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캠페인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미리 준비를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서 캠페인의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도 쉬웠던 것은 아니다.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손짓발짓 다 동원하여 겨우 뜻을 전달할 수 있었다.



캠팀의 생각



한결

캠페인을 하면서 놀랐던 건, 서양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또 다른 빈곤한 국가인 네팔에서 온 관광객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얘기했다.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빈곤'에 관심이 많을 거란 건 순전히 나만의 착각이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말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앙코르와트에 가려진 캄보디아의 빈곤한 이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의 캠페인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박지현

아...정말 생각보다 너무 차가운 시선에 당황해서... 캠페인을 하는 내내 누군가 캠페인을 한다면 잘 참여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양한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의외로 캄보디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부도 더 자연스럽게 했다. 캠페인을 하는 동안 캄보디아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크메르어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민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생각하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적극적인 캠페인 유도가 외국인들을 부담스럽게 했던것 인지 생각보다 냉정한 외국인들의 반응에 조금 당황했다. 캠페인 유도에 힘을 조금 빼니 오히려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였다. 오히려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 캠페인 준비에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 하지 못 한 채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고 end poverty에 대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고용석

모든 일이든 막상 닥쳐봐야 깨닫는 것이지만, 이번 캠페인은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집에서 회의할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캠페인에서 많이 보여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가면 갈수록 많은 이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들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 해주었는데 캠코더 마이크가 고장나서 못쓰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아쉽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프놈프라움에서도 빈곤퇴치캠페인에 대해 알리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다. 캠페인을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평상시에 빈곤퇴치를 알리도록 해야겠다.

희망콘서트

10월 27일 우리가 일하고있는 다일공동체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희망 콘서트 'Lets share our LOVE' 이다. 매년 우기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배위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번 이사를 가고, 물에 사는 사람들도 집을 들어서 다른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사람들은 돕기 위해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게다가 다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필요성도 있었다. 그래서 태권도반, 합창반, 댄스반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여 공연을 하였다. 자원봉사자로 온 소프라노 집사님과 해금연주자 규리단원도 공연하였다. 아띠들도 콘서트를 위해 현수막과 피켓제작, 콘서트에 필요한 의자와 기기 운반 등 여러모로 열심히 도왔다. 그리고 한달동안 춤을 열심히 연습하여 스텝들과 같이 한 공연으로 무대를 꾸몄다. 민기단원과 용석단원은 콘서트시작 직전에 마술쇼를 하여 분위기를 돋구기도 하였다. 이 콘서트를 취재하러 여러 방송국에서도 왔으며, 이 콘서트에 관한 뉴스가 캄보디아 전역에 방송되기도 하였다.



캠팀의 휴가

우리는 캄보디아 명절인
프롬번(12.10.14~12.10.16)을 맞이하여 그
동안 센터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캄보디아 해변 도시인 시아누크빌로 다일
스텝인 해원협 단원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숙소에서 9시간 정도 차를 타고 아침8시경
시아누크빌에 도착한 우리는 첫날에 여러 가지
해변 탐방과 물놀이, 바나나 보트 타기 등을
하고 다음날에는 시장에서 해산물 BBQ를
사서 요트타고 섬으로 이동해 휴가를 즐기고
씨엠립으로 돌아왔다. 시아누크빌도 씨엠립과
같은 관광도시여서 씨엠립과 큰 문화차이를
느끼진 못했지만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
 캄보디아 공휴일인 10.29,31을
 기회삼아 시엠립 시내로 여행을
 떠났다.

10.29 폭포계곡으로 유명한
 프놈쿨렌에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원장님과 스텝2명과 함께 떠났다.
 캄보디아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프놈쿨렌은 정말 아름다웠다. 비록
 특산물인 빨간 바나나는 먹지
 못했지만, 큰 폭포 바로 앞에서
 물놀이한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다.



▶
 ▶
 10.31 툽툽이를 타고 1시간
 거리의 킴퐁 벨록 선착장에
 도착해 1시간 정도 더 배를
 타고 들어가 쪽배를 타고 본
 킴퐁 벨록의 홍수림은 아마존을
 방불케하였다. 캄보디아의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을 만날
 수 있었다.

개인 에세이

민기의 에세이

나 스스로는 거의 캄보디아와 이곳 센터 일에 적응 했다고 생각된다. 적응하고 나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조금씩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다. 9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고 빨리 이곳에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요즘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곳과 이곳사람들에게 녹아들고 있다. 밥퍼 빵퍼 활동들이 초반에는 힘들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일 하는걸 누군가는 알아주거나 할까?' 생각이 컸는데, 이번 달에는 빵퍼 밥퍼 일을 통해 스텝들, 봉사자들과 같이 땀 흘리고 대화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하는 일들이 재밌어졌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달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데, 교육 준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생각 하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해보니 보완할 점이 많았다. 그냥 아이들과 '친해지자'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놀았던 것 같다. 수업을 방해한다고 팀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돌아보니 스스로도 많이 후회가 남았다. 아이들과 잘 노는 것도 철저한 교육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달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남은 3개월을 후회없이 보낼 것이다.

결의의 에세이

캄보디아 온지 두 달, 이제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두렵다. 여기서의 생활이 편해진 걸까,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내게는 즐거웠던 걸까 시간이 간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 영원히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 같아 무섭다. 여기서 한 달을 보냈을 때는 이제야 적응이 된 것만 같았고, 두달이 지난 지금은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어느새 나의 '일상' 이 되어버린 거 같다. 9월 달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 힘들어, 일어나기 싫다' 라는 생각보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마치 내가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것 마냥 캄보디아에서의 라운아띠 활동이 내 '일상' 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가끔 놀라기도 한다. '내가 이 낯선 곳에 무섭게도 잘 적응 했구나' 란 생각에..... 그리고 이 일상을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것이 나를 더 놀랍게 만들었다. 라운아띠에 처음 지원할 때부터 무조건 '즐겁게 활동하자' 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원활동을 하며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즐겁지 않으면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라운아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드디어 라운아띠의 진정한 단원이 된 것만 같아 기뻐했다. 특히나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쌀라아띠로 한국어수업을 하게 되었고, 프놈끄라운 중학교, 프놈끄라운 유치원, 썸크니어 유치원에 수업을 나가고, 도서관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활동하다보니 더더욱 바쁘고, 또 그 바쁜 일상을 통해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비록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준비한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교육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밥퍼를 하고, 밥퍼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쌀라아띠, 학교수업, 도서관프로그램을 하면서 징그럽게도 바쁘고 힘들었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 이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캄보디아에서의 라운아띠 생활이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 같다.

지훈이의 에세이

어쩌면 시간이 이리도 빨리 가는 것인지 참.. 바쁠 때 한번 씩 한국말보다 크메르어가 먼저 한번씩 튀어 나오는 나의 모습에 웃기기도 하고 크메르어가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음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번 달은 우선 팀원들과 많이 이야기 하면서 내가 힘을 팀원들 앞에서 좀 더 뺐던 달인 것 같습니다. 늘 속으로 이 즐겁고 소중한 나날들을 우리들이 함께 보냄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또, 이번 달은 여행도 많이 갔는데 캄보디아의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곳들 속에서 즐겁고 신나게 많이 놀아서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체력이 많이 딸리는 사람인 줄 몰랐지요. 더 신명나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늘 집으로 가는 길에 아쉬움이 함께 하는 π π π

그리고 일요일에 한 번씩 어린이예배를 가기 시작했는데, 프놈프라움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킬링필드의 피해지역인 쓰루뿌억마을에서의 어린이예배는 늘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끔-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저번 주 목발을 짚고 한쪽 바지자락을 펴려이며 열심히 쌀을 나눠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직도 지뢰가 파묻혀 있는 이곳. 문득 라운아띠 8기가 처음 만났던 곳이 생각났어요.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목사님과 오이현아간사님은 아직도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겠지요.

캄보디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서 정신이 어찌다가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밥 먹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늘 열심히 일하고 놀겠습니다.

용석이의 에세이

벌써 두달이 흘렀다.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캄보디아어 실력은 답보상태이고, 캄보디아어 녹아들었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출국하기전 생각과 각오들은 어디갔나 싶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을까 되돌아보게 된다. 시간은 정말 빠르고, 5개월이 끝나는데 벌써부터 두렵다. 남은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것 처럼 느껴져서 이제까지 보낸 하루하루가 정말 아깝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하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허투루 보내는 날이 없어야겠다.

다일에는 김학용 원장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잘 운영되지 못했던 점들을 하나하나씩 바꾸시고 있다. 또 라운아띠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활동을 적극 서포트 해주려고 하신다. 그런 점이 나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이 기회에 이제까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야겠다. 11월달을 실천의 달로 만들어야겠다.

11월에는 아래 세가지를 꼭 지킬것이다.

1. 매일 크메르어 공부 한시간이상 하기
2.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자전거로 출근하기
3. 에어컨 틀지 않기

사진전



↑ 다가이 치~~즈



↑ 쓰룩뿌억에서 조잘조잘~ ♪



↑ 밥먹으러 뛰어가는 넌 누구?



↑ 숨은 명소 캠프플록에서



↑ 깐냐의 브이V



↑ 밥퍼가 끝난 후 휴식시간~



↑ 뭐가 그렇게 웃겼지?????



↑ 아슬아슬한 쪽배를 타고 캄퐁플록에서



↑ 프놈끄라움 사원에 앉아있는 피아



↑ 저는 로다나예요~~~!!!!



↑ 콘서트가 끝나고...



↑ 뽀뽀하는 잿뜨라~ 쪽!



↑ 하나, 둘, 셋 찰칵!



↑ 호잇짜~!



↑ 캠프플록에서



↑ 어꿘! (감사합니다!)



↑ 센터 앞 귀염둥이 삼인방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환경송!



↑ 프놈그라움 예쁜 아이들과



↑ 열심히 콘서트 준비한 스텝들 화이팅!